공동체 소식

대림 제3주일

하느님, 하느님 백성이 주님의 성탄을 간절히 기다리오니,
저희가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이 축제를 맞이하게 하소서

▣ 12월 기도지향

+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냉담자들의 가정을 위하여**
+ **예비자 교리를 준비하고 있는 가정들을 위하여**

▣ 대림시기 안내

- 대림시기는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회개와 속죄로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 구역별 판공면담 및 성사 - 일정과 장소

- 일정: 3구역: 12/16(금) 저녁07:00-09:00, 4구역: 12/17(토) 저녁07:00-09:00
- 장소: 본당 나자렛 교육관.

▣ 소공동체 봉사자 모임(구역장 반장 모임)

- 일시: 12/18(주일) 미사 후.
- 장소: 본당 나자렛 교육관.

▣ 예수 성탄 대축일(12/25)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1) 애찬조

- 성탄절: 행사 1조 (조장: 정연숙 막달레나).
- 1/1 대축일: 행사 2조 (조장: 김경숙 스콜라스티카)

▣ 성인 세례성사 공지

- 일시: 2017. 1. 1(주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중.
- 대상: 김태선, 김태디 (미주리주 스프링필드 거주).

▣ 2017년도 매일미사책을 주문 바랍니다.

- 안내: 자세한 사항은 전례부 봉사자들에게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과 건축보수기금의 완납을 위해 성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시 작	예 물	성 체	파 견
92	216	153	88

▣ 주일미사 복사

	시종 복사	향 복사
금 주	김정원 안젤라	문호진 안토니오
	정예진 한나	김준영 요셉
차 주	문예나 요안나	문호진 안토니오
	김정원 안젤라	이원준 요한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 제2독서
금주	정수한 베드로	박희영 카타리나
		최선윤 마리아
차주	김대연 요셉	감영진 라파엘
		한춘희 라파엘라

▣ 애찬 봉사자

금주	정연숙, 박동희, 임수현
차주	조경희, 김계숙, 유수경

▣ 헌금 봉사자

금주	박희영 카타리나, 이우영 가브리엘
차주	김태중 예레미야, 문석찬 요셉

▣ 우리들의 정성

하느님께 드리는 헌금과 교무금에 정성을 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성체	헌금	교무금
12/04	72명	342불	2,400불
김호원, 유영운, 조지연, 김태선, 박재천, 홍순익, 이영민, 박동희, 차호섭, 문석찬, 감영진, 한봉경 (총 12 세대)			
건축헌금	지난주 합계: 1,450불, 총합계: 9,000불		

미사시간
주 일:11:00 AM
화요일: 7:30 PM
목요일:10:00 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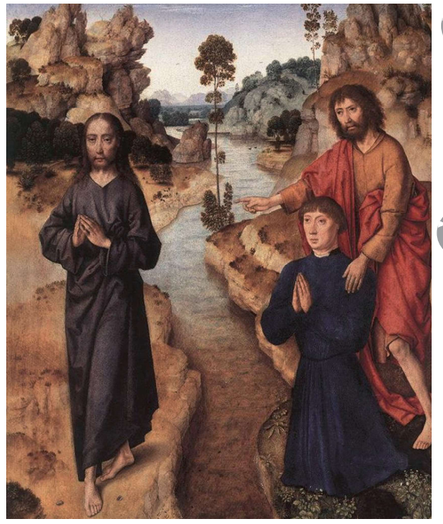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김대연 요셉 812.272.4770 moss0106@gmail.com

주임신부 홍 진 베드로
M: 913.912.2574
hongjhin@daum.net



오늘의 전례

오늘은 대림 제3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군중이 세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선 주일이기도 한 오늘,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라는 요한의 권고를 새기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기로 다짐합시다.

성화해설

보라 하느님의 어린양

(디에릭 보우츠, 1462-1464년, 목재, 뮌헨 알테 피나코테크 미술관, 독일)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알리고, 이를 기뻐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대림 제3주일인 오늘을 '환희의 주일', '기쁨의 주일'이라 부릅니다. 하느님이신 분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가장 가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강생의 신비를 통해 하느님과 인간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생명의 복음」 102항) 이 만남으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 생명의 가치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구세주 강생의신비는 모든 인간 생명이 갖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

제 1 독 서 :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35,1-6ㄴ.10
<하느님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신다.>

화 답 송 :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 독 서 :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5,7-10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가지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 음 :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1,2-11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쉐 마

인내를 갖고 기다려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대제국을 형성한 아시리아는 기원전 722년 북 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 남 왕국 유다로 진군해 들어옵니다. 그러자 유다 임금 히즈키야는 이집트에 원군을 청합니다(이사 36,6). 이런 분위기에서 이사야는 이집트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시온은 구원받고 아시리아는 멸망하리라고 예언합니다(이사 31,1-9).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황이 될 때마다 하느님보다 세상 것들에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특히 자주 의지하던 곳이 이집트입니다. 이사야 때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시대에 바빌론이 쳐들어 왔을 때에도 유다 임금은 이집트에 의지하려 합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빼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집트에서 먹고 즐기던 고기를 잊을 수 없었나 봅니다. 히즈키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이집트에 기댄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히즈키야는 모든 땅을 빼앗긴 뒤 예루살렘 도성에 갇히게 되는 수모를 겪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끝장난 듯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이사야는 다시금 하느님께 의지하라고 권고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모두에게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해 주실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1독서에서 이사야가 전하는 바도 바로 이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하느님께만 의지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으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갇혀 있던 히즈키야에게 이사야의 예언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히즈키야는 이사야의 예언을 받아들여 하느님께 의탁합니다(이사 37,14-20). 그러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야기하신 것처럼 아시리아 군대가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물러납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전합니다(이사 37,36-38). 오늘 1독서가 이야기하듯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복수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사야의 예언은 기원전 8세기에 벌어지던 시대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이사야가 살아가던 시대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예언 안에는 시대를 뛰어넘는 하느님의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사야 자신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시대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참된 하늘 나라, 곧 하느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비로소 이사야가 예언하던 하느님 정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밝히십니다. 세례자 요한도 이 점을 정확히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이시며, 그분에게서 새로운 시대, 곧 하느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당신이 다시 오실 날 모든 것이 완성되리라고 믿고 기다리는 이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은 다시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니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입니다.

대림시기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라는 가르침을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그 말씀으로 교회가 주님을 기다린 지도 200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서 기다림에 다소 지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에 시작이 있으면 마침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분명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인내로이 그때를 참고 기다리는 이들은 반드시 하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 염철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신학 교수)

주춧돌

예수님의 곁에 있던 여인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에는 여성이 사회적으로 철저히 소외된 시대였습니다. 여자는 남자의 재산 목록 중 하나였으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관습을 넘어서 여성을 남성과 똑같은 존재로 대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성들을 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여성을 한 인격체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의 제자처럼 활동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있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루카 8,1-3**

예수님은 여인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았고 더욱이 일부다처제 및 이혼 금지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혼인을 높이 평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는 여성의 인권이 보장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자신의 활동 기간 중에 여성들을 관습과는 전적으로 다르게 대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너무 당연하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보면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을 말씀하시면서 여성에 대한 어떤 주장을 하셨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마르 10,6-12**

성경에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곁에서 그분의 일을 도와드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키고 부활을 체험했던 첫 인물도 여성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치고 배반했어도 여성들은 끝까지 신의를 지켰던 것입니다. 마지막 수난을 당하시는 동안 십자가 곁에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그분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중에서 충직한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 **성경을 찾아 읽어 보세요! 요한 19,17-27**

유다인 남자들은 하루에 세 번 드리는 기도에서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리기도 했습니다. 유다인 사회에서의 여성의 위치를 짐작하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구약 시대의 여자는 주로 성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되었으며 철저히 아버지나 남편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성들을한 인격체로 대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 교회 안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면 우

- 글 허영엽 신부 | 그림 임의준 신부 -

복음묵상

마음

어딘가로 향하는 이의 마음을 알아보려면
그의 주머니 속을 보면 된다.

그의 주머니에 무엇이 가득한지.

어딘가에 서 있는 이의 마음을 알아보려면
그의 눈동자를 바라보면 된다.

그의 눈동자는 어디로 향해 있는지.

떠나지 않는 이에게
떠나달라 말하는 이들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자 한다면,

그곳으로 나가보아야 한다.

멀리서는 절대 알 수 없다.

아니라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마태 11,8)

- 임의준 신부